

AUTHOR 윤봉기

TITLE 칼빈주의자의 강도(講道)·기도관

IN 고신대학보

vol. 13 (September, 1975): 10-11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분위의 거룩한 생활이다.

다니엘의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놀랍게 하며 새로운 각성을 주며 큰 힘을 주는 은혜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다니엘 선지는 기도로 살고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사람이다. 다니엘은 온유하고 말이 없으며 충성되고 기도세계에서 사는 고로 하나님께로부터 특수한 지혜를 얻는다.

3. (6:19-27)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니엘을 구출하신 하나님

1)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심 : 그 당시 악당들은 의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고 큰 돌로 사자굴을 인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2) 다니엘의 무죄함을 명백히 하시려고 사자로하여금 조금도 물지 못하게 하사 이튿날 아침까지 조금도 상처없이, 아마도 위기중에서 다니엘은 특별기도에 특수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3) 다리오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불러올리게 하며 그의 몸에 조금도 상처가 없게 하셨

음.

4) 다니엘에 대하여 작당·모의로 참소한 무리들을 그 가족까지 다니엘을 넣었던 사자굴에 투입케 하여 사자들의 식물이 되게 하심. 이는 상선벌악(賞善罰惡)의 공의를 베푸시는 의의 하나님이다.

5) 다리오왕이 모든 국민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도록 경배케, 찬송케 "영원한 나라, 천세무궁, 구원하시며 천지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본문의 말씀은 이방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진실한 신앙과 불휴(不休)의 기도와 흠이없는 충성되고 경건한 생활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공의와 그의 우주를 주관통찰하시는 유일신 하나님임을 명확하게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이 칼빈주의의 기본원리인 하나님의 주관통치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우주의 창조주이며 죄인구원하시는 구주이심이 명백하게 증거되었다.

아 멘 할렐루야

2. 칼빈주의자의 강도(講道)·기도관

1. 칼빈주의자의 강도문제

칼빈주의자들이 적지 않은 중 특별히 스피츠논이 가졌던 위대한 강도의 미결을 생각하건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

1. 강도자는 강도의 내용을 많이 준비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강도하는 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지혜있게 하여야 될 것을 말한다. 그 지혜로운 방식은

- ① 음성을 낭비하지 말것.
 - ② 무자비하게 말하지 말것.
 - ③ 용기있게 말하되 무례하거나 완패하게 말하지 말고 안정한 태도로 말할 것.
 - ④ 이단을 방지하되 이단 사냥꾼 모양을 나타내지 말것. 다시 말해서 특별히 강단에서 너무 비평이나 사나운 태도를 가지지 말라 했다.
- 목사는 진리의 전파자요 파수자 만큼 남들에게서 비방이나 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싸움의 때에 목사는 몇가지 주의하여 기억할 것이 있다.

- ① 싸움의 때에 말장이가 되지 말고 침묵할 것.
- ② 목사는 한끼는 먹고 한눈은

소경인 듯이 어떤 비평과 오해받음에 대하여는 그냥 목과할 것.

③ 남이 나에게 비평하는 자가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지말것.

④ 나 자신에게 대한 남들의 견해가 어떤가? 하고 알아보는 태도를 취하지 말것. 다시 말해서 남이 나를 해하지나 않나 하여 남을 의심하는 생활을 가질 보다 백번이라도 속는 것이 좋다. "큰 거짓말은 물에서 육지로 뛰어나와 떨어진 고기와 갈아서 가만히 두면 저절로 죽는다"라고 했다.

⑤ 향나무에서 향기가 퍼지듯이 강도자는 실천생활을 힘쓰고 부끄럼이 없이 말할 것.

⑥ 같은 교훈이나 말을 거듭하지 말것. 그는 비유하기를 사람의 몸도 여러가지 영양을 먹어야 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모든 성경의 말씀을 고루 먹어야 된다고 했다.

⑦ 확신을 가지고 명백하게 말하고 중간적 태도를 멀리할 것.

2. 칼빈주의 기도관

칼빈주의에서는 우리가 시간 공간세계에서 기도를 효과적으로 가

질 수 있다고 말한다.

칼빈은 기도에 대하여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3권 제20장에 길게 취급하였다. 그는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과 정신도 집중하여야 될 것을 가르쳤다. 다시 말하면 그는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되어질 것"을 가르쳤다.

다시 칼빈주의자 스펄존이 기도에 대하여 가졌던 견해를 생각해 보자. 그는 기도의 일물이었다. 그는 기도가 자기의 심령에서 구체적으로 되어지는 사실을 자기의 체험으로 증언하였으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기도의 방식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준다.

① 사적 (私的) 기도는 얼마든지

길수록 좋고 공식기도는 짧아야 된다고 함.

② 목사는 사석기도에 있어서 먼저 해산하는 수고를 하여야 된다고 함.

③ 목사가 공식기도에 있어서 측면설교를 일삼아서는 안된다고 함.

④ 공식기도에 있어서 높고 화려한 말들을 너무 경하게 또는 흔하게 말하지 말라고 함.

⑤ 교리를 길게 설명해 내려 가거나 남들의 행적을 소개하여 하나님께 알리드리는 듯한 태도를 삼가라고 함.

⑥ 기도에 있어서 말과 음성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하고 또는 겸손하게 하라고 함.

<*총회장>

論 壇

고신 총회가 나갈길

홍 관 표*

◇...총회의 권위는 세워져야 하며 전반적인 기구의 재 편성...◇
◇...새로운 선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총회해야 한다.◇

지난 제24회 총회를 기하여 우리 교단은 많은 신교(辛苦)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한편으로 경성의 기회를 얻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며 아픔은 있을지라도 환부는 재거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이십전심으로 여문화 되었으며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총회를 주동적으로 이끌고 나간 회원들이 40대(代)에 해당하는 젊은 세대들이었으며 그들은 어느 누구의 발이나 주도하에 피상적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진리에서 자라난 순수한 이성적 판단에서 교단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제거하는데 착수했던 것이다.

이제 4만세기를 맞은 금년 제25회 총회는 모든 행정력을 구사하여 제24회 총회의 상처를 매듭짓고 이제 는 교세확장을 위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상과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한 기구의 재 편성과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워서 과감히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교단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몇가지의 점을 제언해 보고자 한다.

1. 총회 권위의 확립

총회는 장로회 치리회의 최고 기관이며 총회는 전국교회의 대표가 된다. 그러므로 총회의 결정은 곧 교회의 결정이며 교인은 그 결정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총회는 각 치리회의 최고 기관이며 최종 심리기관 이므로 총회가 심리하여 결정한 후에는 다시 변경할 회가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권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최고 기관인 총회에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총회의 결정을 중히 보시는 것이다. (정치 제61조 교회정치 문답조례 제421문 제435문) 제18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은 한국 장로교 회 전체의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聖 岩 社 가 넌

설교자의 핸드북

1000 성경연구와 설교자료

F. E. MARSH 原著

Sermon Outlines and Helps
for Pastors and Students

국판 710면, 양장, 값 3,200원